
기획논문

한국 서양고전학의 현재와 미래

1989년 12월에 인가를 받아 설립된 서양고전학 협동과정은 2019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고 자축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 12월 13일 금요일 오후에 인문대학 14동 204호에서 열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중한 학문의 싹을 틔우기 위해 창립을 주도하고, 그 싹을 피워내기 위해 전투하듯이 교육을 이끈 ‘역전의 용사’들은 어느 덧 현직에서 물러나 ‘학계 원로’라는 표현에 어울릴 희끗한 중후함을 풍기며 대회장 맨 앞줄에 앉았다. 그리고 1991년에 처음 선발된 입학생에서부터 2020년 새 학기 입학할 앞둔 신입생까지 그 뒤를 줄줄이 채웠다. 그 숫자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대회장은 서양고전학에 대한 애정을 가진 반가운 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꺼이 찾아준 덕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심 있게 자리를 지킨 사람 이외에도 허락된 틈새 시간을 이용해 찾아준 사람들까지 모두 센다면, 그 수는 대회장의 크기를 두 배쯤은 훨씬 능가했음에 틀림없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외면하고 돌아서는 탓에 외롭게 공부를 해나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한 대회였다.

학술대회를 위해 보냈던 초청장에다 이 모임을 준비한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에서 서양고전학 연구의 토대를 놓은 ‘협동과정 서양고전학 전공’

이 창설된 지 어느 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 사회는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를 선도하는 서양문명의 힘이 서양고전에 있음을 강조하며 30년 전 설립한 서양고전학 협동과정을 통해 한국사회는 이 문명적 성취를 이해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통해 수용했던 문명의 배후에 있는 정신적 힘을 이론적으로 소화하는 일이 드디어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고 창립 당시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볼 시간입니다. 서양고전학 연구와 교육을 주제로 3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마련했사오니, 부디 참석해 주셔서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그때 발표된 글들을 다시 다듬어 읽어 보면서, 우리 서양고전학의 학문적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왔으며, 이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모두 다섯 편의 글이 발표 되었는데, 그 가운데 두 편은 서양고전학의 뿌리이며, 나아가 서양문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다룬다. 먼저 이태수의 글은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의 첫 장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무사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다. 시인은 무사를 부르며 시를 시작하며, 시는 곧 무사의 노래로 행해지게 되는데, 이는 이후 서양 문학사에서 서사시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그 의미를 헤아리는 것은 서양 문학의 전통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필자는 시인이 청중을 향해 노래하는 행위 이전에 무사 여신이 신들에게 노래하는 행위가 선행된다는 구조에 주목한다. 그리고 무사 여신의 노래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청중인 신들이 갖는 즐거움을 상상하고, 그것을 인간 청중에게 적용할 때 갖는 의미를 밝히려고 한다. 신들의 무사의 노래에서 느끼는 즐거움, 즉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하여 인간들에게 가하는 고통의 서사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도대체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 셈이다. 무사 노래에서 신들이 즐거움을 인간

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인간은 신들이 가하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신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시인은 왜 인간 청중에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일까?

이어지는 이준석의 글은 트로이아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오스에게 쓰이는 표현에 주목하며 호메로스 작시법의 중요한 문제에 접근한다. 아름다운 아내를 트로이아의 젊은 왕자에게 빼앗긴 메넬라오스가 수많은 사내들을 모아 트로이아로 건너가 아내를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씩씩대는 모습을 연상한다면, 필자의 문제의식의 핵심에 다가설 수 있다. 호메로스는 그런 ‘못난’ 메넬라오스에게 전쟁의 신 아레스와 관련된 수식어를 붙여준다. 언뜻 메넬라오스가 전쟁에서 대단한 용사로 활약할 것만 같이 그려주는 관용어 같지만, 작품 안에서 아레스는 전쟁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지 못하며, 심지어 인간의 창에 부상을 입는 ‘못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필자는 이점에 주목하면서, 아레스와 관련된 관용어는 호메로스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단순한 ‘stock epithets’가 아니며, 아레스와 메넬라오스의 특징을 제대로 부각하기 위해 정성껏 발명한 기지발랄한 발명품이라고 볼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호메로스는 안일하게 구전의 관행에 기대지 않고 어떤 구절도 허투루 짓지 않았으며, 모든 구절에 빛을 내기 위해 갈고 닦아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호메로스 서사시의 정수를 맞보는 방법이 아니겠냐고 설득한다.

유군데르트트의 글은 호메로스 다음 세대의 작가인 헤시오도스를 그로부터 4세기 뒤에 활동한 헬레니즘 시대의 시인 칼리마코스의 관계에 주목한다. 두 사람은 살았던 시대적 조건도, 시인으로서 창작하던 상황도 판이하게 달랐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살았던 헤시오도스는 사회가 어떻게 정의롭게 꾸러질 수 있는지, 개인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며 계몽의 시를 쓰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자칫 ‘어른들의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헤시오도스의 진지함과 절실함이 갖는 그 훌륭함에서 칼리마코스는 미학적인 가치와 원리마저도 느끼며 “꿀처럼 달콤한” 시라 예찬했다. 필자는 칼리마코스가 가지고 있던 미학적인 관심이 헤시오도스의 도덕적, 사회적(나아가 정치적) 가치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에 주목한다. 시대와 상황, 문제의식과 관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시인이 공유한 것은 결국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추구, 그래서 결국 그 아름다움을 사회적으로 볼 것인가, 도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심미적으로 볼 것인가의 구분이 무색해지는 그리스인들의 고유한 가치관을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그 아름다움에 무감한 일반 대중에 대해 두 시인이 보이는 모멸감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하고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김현의 글은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후 남은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담은 누가의 두 편의 작품을 다룬다. 초점은 누가의 작품의 독자에 맞춰지는데, 그 독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에 폭 젖어 있던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는 그 독자들에게 낯선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어떤 저술 전략을 썼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글의 초점은 당대 이방인 독자들이 익숙했던 그리스 로마 고전으로 향한다.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이 잘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 고전의 서사와 표현을 모방하였을까? 필자는 이 질문에 긍정의 답을 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질문을 다르게 던지며 접근을 달리하려고 한다. 이방인 독자들을 향한 누가의 저술 전략이 아니라, 누가의 저술에 대한 이방인 독자들의 이해 방식과 관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로써 누가가 예수와 사도의 서사를 ‘지어냈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누가의 저술이 이방인 독자들에게 떠올리게 만들었을 법한 그리스 로마 고전으로 향하며,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이방인들의 기독교 이해방식을 새롭게 조명하려고 한다.

김진식의 글은 필자가 집필한 라틴어 교재 “fabula docet”의 특징을 서구의 교재들, 그리고 국내에 출간된 다른 교재들과 비교하여 부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라틴 문학의 한 획을 그은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필자의 교재가 고전 라틴어의 문법과 표현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면서, 동시에 로마 신화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로마인들의 상상력과 문학적 감수성, 그리고 당대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이 익힐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일종의 보고서 성격을 갖는 이 글은 필자의 교재가 라틴어 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방향을 일으키는가를 흥미롭게 이야기하면서 라틴어 교육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며 동참을 촉구한다. 논문의 가치는 결국 서양고전학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라틴어 강좌에서 학생들을 10년 이상 교육한 필자의 오랜 경험과 숙고와 지난한 노력이 만들어낸 교재의 가치에서 빛난다. 그것은 필자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창립 30년을 맞이한 협동과정 서양고전학과의 귀중한 열매이기도 하다.

김 현

